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0호 [부제 제23182호] 주체99(2010)년 8월 18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지방순회공연중에 있는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함흥대극장에서 지방순회공연중에 있는 《김일성상》계관작품인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시였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로동당시대의 대격적인 경희극 《산울림》을 가지고 지난 4월부터 여러 도들에서 138회의 순회공연을 진행하여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이어 지금 대고지의 불길기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공업도시 함흥에서 대성황리에 공연활동을 벌이고있다.

자나깨나 그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경희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와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범기동지를 비롯한 도의 책임일꾼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1960년대의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한 경희극 《산울림》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정책적문제들과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그대로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안겨주었다.

관람자들은 오늘의 우리 생활, 우리의 리상, 우리의 정서와 모든 면에서 일맥상통한 공연을 보면서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했던 천리마시대 청년들처럼 우리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로동당시대 인간들의 혁명적인 정신세계와 투쟁기풍, 고상한 도덕적공포를 그대로 펼쳐보인 사상에술성이 높은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접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보면 볼수록 심오한 생활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주는 시대의 명작인 경희극 《산울림》은 사람들

의 심장을 틀어잡고 정신력을 불을 다는 특출한 매력과 견인력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것으로 하여 이 작품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친근한 길동무로,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매 년대기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공연하여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충실하게 받아들여온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새 세기 주체적연극예술의 기념비적작인 경희극 《산울림》을 가지고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의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인 공연활동을 높이 평가하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의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인 문학예술 작품들은 커다란 감화력과 인식교양적

의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교양수단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경희극 《산울림》과 같은 명작들을 더 많이 창조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국립연극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지방순회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예술창조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공연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 천만심장에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춤으로써 선군시대 혁명적 예술인의 본분을 다해갈 충성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본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일본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를

일본주체사상연구회 전국련락회 회장인 사쿠가와 세이이찌단장이 16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조국해방 65

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하바롭스카야 크라예마야 제보그라피야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주체적기계공업발전에 기여할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철공장, 선군압축기직장 준공식 진행

【합흥 8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이 훌륭히 준공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통성의 로동계급은 불굴의 정신력과 창조적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질 좋은 대형주물품과 현대적인 압축기들을 생산하기 위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자랑스런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원로공급으로부터 혼사, 조형, 용품, 사략 등 모든 생산공정이 컴퓨터의 조종에 의하여 움직이는 선군주철공장과 CNC설비를 갖춘 선군압축기직장이 새로 꾸러짐으로써 통성기계련합기업소는 굴지의 대기계생산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주물혁명과 압축기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되었다.

또한 로력을 절약하고 전력소비를 극력 줄이면서 주물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생산문화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위에 세상을 놀래우는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나 주체사상승리의 합성이 도처에서 울려 퍼지는 속에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이 완공된것은 주체적기계공업발전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서 새로 건설된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 준공식이 17일에 진행되었다.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총적하게 받들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창조와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조국의 제부를 마련한 통성로동계급의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 더없는 기쁨

과 행복이 준공식장에 차고넘쳐 있다.

준공식장 한 가운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 있었다.

준공식장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세!》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세!》 3일연립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김영남동지와 김락희, 전하철, 강능수, 박수길, 조병주, 한광복 내각부총리들, 판계부 문 일군들,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주철공장, 선군압축기직장을 일떠세우는데 공헌한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보내신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해안에서 대우회의 주물품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삼복의 무더위와 한겨울의 찬바람도 가리지 않고서도 어려서부터 기업소를 찾으면서 현대적인 압축기와 대형주물품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한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시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을뿐 아니라 통성의 로동계급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변불휴의 령도는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한 원천이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맞먹는 생산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업소장년동계대원들은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부족되는 건설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고 앞선 공법들을 대담하게 창안도입하면서 건물공사와 설비기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수심중의 주물설비들과 압축기생산설비들에 대한 설치공사와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성, 중앙기관들과 국가과학원, 인민대학습당 등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산기지를 정비화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새로 건설된 선군주철공장, 선군압축기직장은 어버이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원인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민족자존의 기상과 담력, 배짱으로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낸 통성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이 낳은 창조물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오늘 기업소에서 울려 퍼지는 생산의 장엄한 동음은 미래와 남조선피해자들의 전쟁도발행동을 단호히 짓부시는 퇴심으로 되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나갈 때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리게 될것이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들어가는 열혈투사가 벌대하여 언급하였다.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우리 당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투쟁정통을 더욱 빛내이며 중산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과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최첨단과학기술의 요소를 집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기계제품의 가치수를 높이며 전반적생산공정을 현대화, 과학화하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기업소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총동기, 가속기가 되어 조직적시업을 진공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010년 8월 17일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축하하시였다.

본사정치정보단
본사기자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발표 20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17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단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보고회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경 천도교중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련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사회단체책임인원들, 판계부원 인원들, 평양시 정권기관 인원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추악으로 시작되었다.

양형섭동지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승사라 빛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지금 래일예 대한 심심과 락관에 넘쳐 대담을 띠고 대고조의 한길로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내달리고있습니다.”

세로운 천리마속도, 최고속도의 창조자처럼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금야강 2호발전소건설에 펼쳐 나간 당원들과 돌격대원들이다. 지금 이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

당원들이여, 앞으로!

봄의 서풍인양 불시위들이 사들여 호르던 지난 3월 어느날이냐.

금야강상류에 위치한 강기슭에서는 금야강 2호발전소건설작공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광광하게 울려 퍼졌다. 전투장의 곳곳에서 붉은기가 휘차 휘날렸다.

속도와 도로건설, 동력선공사 가 일단 마무리되자 현장작업부에서는 지체없이 가물막이 전부에서 돌격대원들을 보리었다.

불철이라고 하지만 물은 아직 녹지 않았다. 돌격대원들은 함마를 휘두르면서 돌격전을 벌였다.

대매와 대매, 중매와 중매 도상간 사회주의경쟁이 선포되었다.

그들의 전투목표는 짧은 기간에 발전소건설공사를 완공하는 것이었다. 《남들이 뛰면 우리는 날자!》는 속보가 나붙은것으로 바로 이때였다.

진눈깨비가 내릴 때면 솟은은 순간에 얼음투성이로 변해 버렸다.

대원들은 솟음이 팽팡하게 얼어붙는 잔뜩에 무거운 흙마대를 지고 달렸다.

그리움의 노래는 가물막이전투와 마찬가지로 기초공사전투 역시 간단치 않았다.

곧은 암반이 나를 때까지 굴착작업을 해야 하였다.

문제는 땅이 너무 얕아 기계수단을 쓸 수 없었던것이었고 땅을 파고들어갈수록 물이 솟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발표

20돐 기념 평양시보고회 진행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발표 2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오늘 전체 조선민족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주제 79 (1990)년 8월 18일 법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만나시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라는 역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신것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힘으로 풀어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방도와 공동의 투쟁대책을 토의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조하여 변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문제, 온 민족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뭉쳐 투쟁할데 대한 문제 등 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하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준 고전적로작을 받들고 해내에서 범민족대회의 성과에 기초하여 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으며 마침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태어나게 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민족적단결의 고귀한 정령은 우리 조국의 재보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적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과 리념을 지니시고 민족자주통일의 담보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진화적국면을 열기 위한 위대한 진로를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실현하신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땅히 기점으로 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필승의 선군정치와 반미투쟁전략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진민족적투쟁에서 역사적전환을 마련하시는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나라의 통일과 북성민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가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선군혁명령도자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그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과 괴뢰역적계당이 반공화국제제와 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는 한편 방대한 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을 투입하여 북한전쟁영승을 계속 팽창적으로

투쟁을 중단할수 없었다. 이렇게 낮과 밤이 따로 없는 30시간 동안의 돌격전을 벌려 이들은 첫 구간의 기초타입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주인공들의 위훈에 대하여 다진하지 못한다. 불면한 몸이지만 전투장을 떠나지 않고 높은 요구성과 뜨거운 인정미로 대원들을 돌격전으로 불러일으킨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완강한 실천력으로 대하여, 현장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진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전투원들을 고무해준 군기운동선동대원들의 위훈에 대하여...

여기에 새벽 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30시간동안 타임전투를 벌리던 때의 한가지 사실을 더 적으려 한다.

한구간에 500m²의 혼합물을 증단없이 다져넣어야 하는 기초타입공사는 매우 어려웠다. 기계설비라고 해야 혼합기 3대밖에 없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수십개의 혼합물을 더 준비하도록 하고 기초타입공사에 진입하였다. 전투장에서는 또다시 돌격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한쪽에서는 혼합물을 이기고 다른 쪽에서는 혼합물을 맞들이로 날라다 타임전투를 벌였다.

돌격대원들은 맞들이 하나를 들고 달려오는것도 성가차지 않아 그우에 맞들이 하나를 더 울려놓고 쉬임없이 달려

갔다. 그러나 지휘관이나 대원들이나 누구나 할것없이 손바닥과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서 한 곳이란 한곳도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타임을 조금이라도 중단하면 기초에서 물이 셀수 있었기때문에 고지였다.

그들은 복침전쟁연습소동에 팽분하며 정세를 엄격한 국면에서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전민적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며 공화국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심히 위협하고있다고 그들은 격분에 넘쳐 말하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따라 굳게 단결하여 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온 겨레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시대를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개천고무일용품공장에서 개천고무일용품공장은 어디 서나 흔치 않을 수 있는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이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원가 저렴하고 그 질이 높아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다른 도에서도 호평을 받고있다.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이지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결실한 필요한것을 자체로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한것, 바로 이것이 공업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재험을 믿고 땀흘려서 애를 써야 할일이 없다는 배신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대고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몇해전까지만도 공장의 생산능력은 대단하였다. 생산선진도 단종준들 4등이 전부였다.

지배인 김순애동무의 마음속에는 늘 어떻게 하면 공장을 활성화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그는 현생산을 하면서도 사색을 멈추지 않고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던 파견고무를 다루는 공장의 실정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고무제품을 많이 생산할 결심을 굳혔다.

당초적에서 조 지배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였다.

새 제품생산공정들을 꾸리는 데 필요한 설비, 부속품, 자재를 마련하였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장일군들은 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우려 민족이 나아갈 길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하는 길밖에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것은 반통일, 반민족적범죄행위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들을 적극 옹호하며 실천하여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기 위한 반미 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일본반동들의 제침책동과 반공화국적대시정

투쟁으로 종업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프레스, 피대성형기 등 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남포르는 창조적열의와 헌신의 구슬땀을 바쳤다.

앞선 단위들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중량이 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출가한 투쟁을 벌였으며 각종 형태를 마련하기 위해 고집이 완강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공장에 새 제품생산공정이 그르흔 갖추어지게 되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자, 노동자들을 발동하여 제품의 질보장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원료원천확보체계도 확고히 세워놓았다. 지금 공장에서는 각종 크기와 형태의 바퀴와 피대들을 생산하여 공장, 기업소, 탄광, 협동농장들에 보내주

고있다.

몇가지 표본이나 생산하던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결실한 요구하는 제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특파기자 리 혁 철

돌격전의 낮과 밤은 이렇게 흐른다

금야강 2호발전소건설에 참가한 당원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

업을 끝까지 관철하여 금야강을 행복의 무궁도원으로 만들겠다는 불같은 열망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절기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심심과 락관을 안고 치열한 돌격전을 벌려 불과 100여일동안에 연제콘크리트타입의 70%를 해체한 이 곳 당원들과 돌격대원들의 영웅적투쟁의 일단을 여기에 전한다.

《안되겠소, 나와 교대하지요.》라고 하면서 그를 부축해주던 지휘관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의 팔꿈에서 피가 흐르고있었다. 그러자 그 대원은 《저 뼈여져나온 돌매에...》라고 하면서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지휘관은 목에 걸렸던 수건으로 그의 상처를 싸매주었다. 《동무는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소.》

그러자 그 대원은 이렇게 소리쳤다. 《안됩니다. 저는 당원입니다. 빨리 가물막이를 끝내야 안제를 쌓을게 아닙니까.》 그리고는 흙마대를 지겠다고 모지름을 쓰느것이였다.

지휘관의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정령 돌격전의 낮과 밤은 이렇게 흘러갔다.

대원들의 선봉적열화와 돌격대원들의 불같은 열정에 의하여 몇달은 걸려야 한다고 하던 가물막이공사를 불과 며칠동안에 끝내고 기초공작전투에 진입하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심장의 박동소리

구쳐나오는것이였다. 한쪽에서는 양구기소 물이 퍼졌고 다른쪽에서는 함마와 정대로 발파구멍을 뚫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도전을 지켜내야 하는 결사전이었다.

처녀돌격대원들도 함마를 들고 나섰다. 그들은 쌍함마진으로

로 남성들도 혀를 두들 정도로 겹겹히 함마를 휘둘렀다. 그리고 발과 발사나면 또다시 전투를 벌였다.

어느덧 전투장에는 휴식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다.

곳곳에 우뚝이 타올랐고 대원들은 그 주변에 둘러앉아 목숨을 위하여 한지지도의 길을 걷고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난관이 앞을 막아도 기이 발전소를 건설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 것입니다. 우리모두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신장을 뻗었다. 노래 《여디에 걸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였다.

복두철성 저 멀리 붉은 밝은데 아바지 장군님은 어대 개실가 ...

노래는 삼시에 합창으로 번져갔다. 그 노래는 대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노래는 심장에서 뿜어져나와 심장을 두드린다고 한다. 대원들은 그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게 돌격전의 낮과 밤을 줄기째 이어갔다. 밤이되면 줄기째 계속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정에 돌격대원들은 타임전투를 중단할수 없었다. 이렇게 낮과 밤이 따로 없는 30시간 동안의 돌격전을 벌려 이들은 첫 구간의 기초타입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주인공들의 위훈에 대하여 다진하지 못한다. 불면한 몸이지만 전투장을 떠나지 않고 높은 요구성과 뜨거운 인정미로 대원들을 돌격전으로 불러일으킨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완강한 실천력으로 대하여, 현장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진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전투원들을 고무해준 군기운동선동대원들의 위훈에 대하여...

여기에 새벽 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30시간동안 타임전투를 벌리던 때의 한가지 사실을 더 적으려 한다.

한구간에 500m²의 혼합물을 증단없이 다져넣어야 하는 기초타입공사는 매우 어려웠다. 기계설비라고 해야 혼합기 3대밖에 없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수십개의 혼합물을 더 준비하도록 하고 기초타입공사에 진입하였다. 전투장에서는 또다시 돌격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한쪽에서는 혼합물을 이기고 다른 쪽에서는 혼합물을 맞들이로 날라다 타임전투를 벌였다.

돌격대원들은 맞들이 하나를 들고 달려오는것도 성가차지 않아 그우에 맞들이 하나를 더 울려놓고 쉬임없이 달려

갔다. 그러나 지휘관이나 대원들이나 누구나 할것없이 손바닥과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서 한 곳이란 한곳도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타임을 조금이라도 중단하면 기초에서 물이 셀수 있었기때문에 고지였다.

그들은 복침전쟁연습소동에 팽분하며 정세를 엄격한 국면에서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전민적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며 공화국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심히 위협하고있다고 그들은 격분에 넘쳐 말하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주인공들의 위훈에 대하여 다진하지 못한다. 불면한 몸이지만 전투장을 떠나지 않고 높은 요구성과 뜨거운 인정미로 대원들을 돌격전으로 불러일으킨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완강한 실천력으로 대하여, 현장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진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전투원들을 고무해준 군기운동선동대원들의 위훈에 대하여...

여기에 새벽 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30시간동안 타임전투를 벌리던 때의 한가지 사실을 더 적으려 한다.

한구간에 500m²의 혼합물을 증단없이 다져넣어야 하는 기초타입공사는 매우 어려웠다. 기계설비라고 해야 혼합기 3대밖에 없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수십개의 혼합물을 더 준비하도록 하고 기초타입공사에 진입하였다. 전투장에서는 또다시 돌격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한쪽에서는 혼합물을 이기고 다른 쪽에서는 혼합물을 맞들이로 날라다 타임전투를 벌였다.

돌격대원들은 맞들이 하나를 들고 달려오는것도 성가차지 않아 그우에 맞들이 하나를 더 울려놓고 쉬임없이 달려

갔다. 그러나 지휘관이나 대원들이나 누구나 할것없이 손바닥과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서 한 곳이란 한곳도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타임을 조금이라도 중단하면 기초에서 물이 셀수 있었기때문에 고지였다.

그들은 복침전쟁연습소동에 팽분하며 정세를 엄격한 국면에서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전민적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며 공화국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심히 위협하고있다고 그들은 격분에 넘쳐 말하

고있다.

몇해전까지만도 공장의 생산능력은 대단하였다. 생산선진도 단종준들 4등이 전부였다.

지배인 김순애동무의 마음속에는 늘 어떻게 하면 공장을 활성화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그는 현생산을 하면서도 사색을 멈추지 않고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던 파견고무를 다루는 공장의 실정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고무제품을 많이 생산할 결심을 굳혔다.

당초적에서 조 지배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였다.

새 제품생산공정들을 꾸리는 데 필요한 설비, 부속품, 자재를 마련하였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장일군들은 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우려 민족이 나아갈 길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하는 길밖에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것은 반통일, 반민족적범죄행위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들을 적극 옹호하며 실천하여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기 위한 반미 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일본반동들의 제침책동과 반공화국적대시정

투쟁으로 종업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프레스, 피대성형기 등 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남포르는 창조적열의와 헌신의 구슬땀을 바쳤다.

앞선 단위들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중량이 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출가한 투쟁을 벌였으며 각종 형태를 마련하기 위해 고집이 완강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공장에 새 제품생산공정이 그르흔 갖추어지게 되었다.

현신으로 빛나는 고결한 삶

경관공작기계공장
주물분공작 주물작장 부문장 김두만동무

지난 6월 9일 저녁, 한경대공작기계공장의 종업원들끼리는 너무나 평범하게만 여겨왔던 한 인간의 삶을 두고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고 있었다.

그날도 직장종업원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이며 생산현장에서 치열한 돌격전투를 벌려가던 주물분공작 주물작장 부문장 김두만동무가 남모르게 앓던 심장병으로 뜻밖에 순직하였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의 삶이 보람있는것은 오직 단 한가지 일인즉슨 자기를 바치는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실천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생원들에게 당과 수령을 받드는 순결한 양심과 의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였다.》

그날의 행군, 강행군시기는 굵어쓰러지면서도 남

수행하도록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도 성적이 6월에 들어와서도 10월의 경속공장이 멀지 않았다고 호수호수처럼 종업원들의 앞에서 불같이 일하다가 떠나간 김두만동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종업원들의 가슴에는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바치는 무한한 헌신에 있는 생의 진리가 다시금 되새겨졌다.

김두만동무는 언제나 종업원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었으며 오직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것밖에 몰랐다. 그는 자기의 실천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생원들에게 당과 수령을 받드는 순결한 양심과 의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였다.》

그날의 행군, 강행군시기는 굵어쓰러지면서도 남

을 위해주고 집단안에 불보다 뜨거운 동지적사랑이 차 넘치도록 한 사실을 종업원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앓고있는 종업원들을 꼭꼭 찾아 오고 스스로 간병원, 간호원이 되어주었으며 종업원들의 자녀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할 때에는 친자식을 위하여는 마음으로 온갖 지성을 다 기울였다.

그는 올해에도 종업원들의 자녀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할 때 기념품도 성의껏 마련하여 안겨주면서 군사부무를 잘하라고 고무해주어 그들의 부모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애국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헌신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꿋꿋이 새겨주며 오늘날의 대고조전진군에 언제나 종업원들과 함께 서었다.

본사기자 리 정 수

무분별한 전쟁연습소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역적패당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재령광산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결기모임 진행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기 위한 결기모임이 재령광산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관공, 대학 등에서 현일 진행되고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악하고 그를 기화로 핵전쟁의 불기름을 불어넣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리명박역적패당의 극악한 책동으로 하여 오는 조선반도에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발적인 해상합동훈련을 강행한 전쟁광신자들이 또다시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전민적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며 공화국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심히 위협하고있다고 그들은 격분에 넘쳐 말하

고있다.

그들은 반공화국살상책동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호전파들에게 복수의 철수를 안기기로 심정으로 우리 인민은 생산과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끊임없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령광산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호전파들이 부집업는것에 계속 매여달리던 자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복침전쟁연습소동에 팽분하며 정세를 엄격한 국면에서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전민적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며 공화국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심히 위협하고있다고 그들은 격분에 넘쳐 말하

공화국의 단호한 립장을 반영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사업을 받들고 전투장마다에서 대고조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밀고진 수송계획을 초과완수하며 더 많은 트락트르부속품을 생산보장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북침전쟁광신들을 쫓아내고 실전연습소동을 편이 벌려놓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리명박역적패당을 준벌할 규탄하는 목소리는 장강금, 재령군 삼지강합동농장 농장원 결기모임에서도 힘차게 울려나왔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나라의 쌀독

을 책임진 주인된 립장에서 당면한 농사일을 앞당기고 간지하게 하여 뜻있는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마련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실업사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결기모임을 가지고 조선민정 정세의 요구에 맞게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지니고 단단의 전투동원체제를 갖추며 교육사업과 학과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선군의 위력으로 적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일터마다에서 혁신성공과 이룩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발표 20돐 기념 평양시보고회 진행

미국의 《래평양국가》론은 아시아 지배론

미지배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 《래평양국가》라는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남조선 등 아시아 나라들을 행각한 미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래평양국가》로서 아시아를 보다 중시하고 아시아 나라들과의 《협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무성 고위당국자도 같은 소리를 하였다. 최근 미국 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은 미국회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아시아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떠들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미국이 《래평양국가》이므로 이 지역에 깊이 개입할 뿐 아니라 지배야망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래평양국가》라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지리적으로 놓고 볼 때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다. 아시아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멀리 떨어져 있다. 아시아 나라들과 미국의 생활방식은 다르다. 인종과 풍습, 외부에서도 아시아인과 미국인은 차이가 많다. 어느모로 보나 미국을 래평양국가, 아시아국가라고 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

감정하여 평토를 본래의 10배이상으로 확장하였다.

이런 속에서 《래평양제국》론에 찬성자들이 나타났다. 그 사상적대변자로 나선자가 침략미치광이인 윌리엄 시어였다. 그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래평양을 지배하여야 할 《새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미국의 정치 및 경제활동의 더욱 큰 무대는 래평양지역이다.》라고 뇌까렸다. 이때부터 《래평양제국》론자들은 《래평양의 통치권은 반드시 미국에 속해야 한다.》, 《래평양과 아시아는 마땅히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처럼 미국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배주의적외교에 따라 제 2차 세계대전에는 물론 그후에도 그와 같은 말발들이 튀어나왔다. 레간 정권시기에 와서 미제의 대외정책이 유럽중심으로 아시아중심으로 이행하면서 《래평양국가》론은 국가교리로 정착화되었다. 당시 미국대통령 제 42대는 《미국은 래평양국가이다》(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지역에 진출하여야 한다.》고 떠들었다. 이것은 식민주의자들이 《개척》이라는 이름에 오베코를 비롯한 미국의 서부주들을 정복하고 강탈한 《정신》을 가지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대 미국대통령 지베추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따르며 그대로 행동하였다.

미지배론은 《래평양국가》론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전략적 및 지적한 적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을 틀어쥐는 것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이 지역은 현시기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냉전시기 국제정치 중심은 주로 소련과 미국을 두 극으로 하여 여러 나라들이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대결하고 있던 유럽지역이었다. 그러나 냉전종식후 그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졌다. 《9. 11 사건》이 터지고 중동지역정세가 혼란된 속에서 열강들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정치, 경제, 군사적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반제자주력업 발전시켜나갈 수 없는 것이다.

두루기 문제로 되는 것은 미국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미행정부가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전반적인 침체와 감퇴, 실업자증대는 계속되고 있으며 예산적자와 무역적자가 격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적극 진출하지 않고서는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미제 무성 차관 데이비드 맥코믹가 《현재의 위기는 무역투자자의 세계화 시대에 래평양양반의 경제와 사회적 번영이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제장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부단히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에 의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이 이러한 전략적 전환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중대되는 침략과 전쟁정세의 요구에 맞게 군사공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없는 것이다. 미제 무성 차관 데이비드 맥코믹가 《현재의 위기는 무역투자자의 세계화 시대에 래평양양반의 경제와 사회적 번영이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제장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부단히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에 의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제 무성 차관 데이비드 맥코믹가 《현재의 위기는 무역투자자의 세계화 시대에 래평양양반의 경제와 사회적 번영이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제장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부단히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에 의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제 무성 차관 데이비드 맥코믹가 《현재의 위기는 무역투자자의 세계화 시대에 래평양양반의 경제와 사회적 번영이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제장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부단히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에 의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배론이 《래평양국가》론을 계속 제창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때문이다.

그것은 양말론은 《래평양제국》론과 관련되어 있다.

미제는 아메리카대륙이 발전한 후 유럽대륙에서 건너가 도착한 이주민들에 대한 살육과 학살을 본업으로 삼아온 해적무리의 후예들이다. 인디안살육극의 피다마우에서 1776년에 솟아난 미국은 자기의 존재 전 기간 침략과 전쟁을 자의 일이었다. 미제는 1776년부터 20세기 초엽까지 아시아에 114차의 군사적간섭 전쟁과 8900여회의 근교작전을

미지배론은 《래평양국가》론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전략적 및 지적한 적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을 틀어쥐는 것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미지배론은 《래평양국가》론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전략적 및 지적한 적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을 틀어쥐는 것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미지배론은 《래평양국가》론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전략적 및 지적한 적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을 틀어쥐는 것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미지배론은 《래평양국가》론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전략적 및 지적한 적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을 틀어쥐는 것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미지배론은 《래평양국가》론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전략적 및 지적한 적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을 틀어쥐는 것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미지배론은 《래평양국가》론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전략적 및 지적한 적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을 틀어쥐는 것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시대착오적 망동

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국이 유럽남부지역에 대한 미사일방위체제를 다그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벨라루스 등 나라들에 X대역에다 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협상을 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미사일방위체제수립에서 핵심으로 되고 있는 이 체계는 다음해부터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앞으로 2015년까지 2단계로 벨라루스, 2018년까지 3단계로 폴스카에 미사일방위체제와 《이시스》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세계가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때에 미국이 미사일방위체제수립행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인류의 평화년월을 더한 악랄한 도적이든 세계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동북아시아지역에 미사일방위체제망을 형성해 놓고 미국은 유럽에도 그런것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남유럽에 대한 미사일방위체제수립을 완성함으로써 전유럽적인 미사일요격망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두 전선에서 미사일방위체제수립을 추진하고 그것을 전

세계적범위로 넓혀나가는 것이 미국 의 기도이다. 유럽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제수립 움직임은 그 한 고리이다.

미사일방위체제가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이 체계수립에 대한 대국들의 반발도 간단치 않다. 미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미사일방위체제개발행동에 광범함으로서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불어넣고 있다.

원래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방지하는 데서 회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냉전시기 힘의 우세로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조장 격화시키고 평화를 엄중히 위협, 파괴하였다.

냉전이 종식되고 군사적경쟁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미국은 마땅히 무력증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적인 군비경쟁과 군사적대결을 조성할 수 있는 미사일방위체제수립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그 속심은 어디 있는가.

우선 이 계획들을 실행함으로써 세계의

전략구조를 파괴하고 저들이 잠재적인 《적수》로 여기고 있는 대국들을 견제하며 세계도처에 배비해놓은 미사일들로 일국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한편 그것을 통해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조장하고 거기에 저들의 잠재적인 《적수》들이 달려들게 함으로써 그들을 경제적으로 빠뜨려 하고 있다.

미국이 미사일방위체제전개의 길로 나가면 나날수록 세계평화가 보다 엄중히 파괴되고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주변에서 미국이 다그치는 미사일방위체제전개행동이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행위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이미 거듭 경고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사코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위체제전개행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부분적인 시대착오적인 망동이 세계의 평화보장에 보다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은 뻔하다.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다.

미지배론은 《래평양국가》론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전략적 및 지적한 적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을 틀어쥐는 것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미지배론은 《래평양국가》론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전략적 및 지적한 적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을 틀어쥐는 것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미지배론은 《래평양국가》론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전략적 및 지적한 적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을 틀어쥐는 것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미지배론은 《래평양국가》론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전략적 및 지적한 적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을 틀어쥐는 것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피델 카스트로 동지

미국의 핵전쟁위협책동 경고

쿠바혁명적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동지가 7월 쿠비인민주권민족회의 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핵전쟁위협책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미국이 만일 이란과 조선을 공격하면 쿠르드 공중 그리고 전체 유라시아대륙에서 동시에 무장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 경우 세계적인 핵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그러한 위협을 시급히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8월 한 상봉식상에서 미국에 의해 초래될 핵전쟁 참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한다면 핵전쟁

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핵전쟁위협을 방지하는 것은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위협책동을 중지하도록 미국에 압력을 가할 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에파드르에서 12일 리히터 척도로 6.9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은 나라의 중부도시 암바토로부터 동쪽으로 14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편 바누아투에서 11일 리히터척도로 6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은 포트 빌라로부터 서북쪽으로 7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배라루세의 그르드노주, 위젠스크주 등 여러 지역에서 8일 강풍과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1000여명의 살림집과 사회봉사 시설 등이 파괴되었으며 2000여개의 주민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위질랜드 발전소의 송전설비

스위질랜드 발전소의 송전설비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

올해에 지구결빙의 평균온도가 백수십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혹심한 가물이 계속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가물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나라는 로씨야이다.

이 나라에서 가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27개이다. 6000여개의 농장들이 큰 가물피해를 입었다. 농경지피해면적은 1000만ha에 달하고 있다. 벼베변경에서 2만 4000ha 이상의 밭에 심은 농작물이 못쓰게 되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로씨야에서 가물로 제일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은 농업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에서 올해의 알곡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볼리비아도 많은 가물피해를 입었다.

얼마전 볼리비아정부는 계속되는 가물로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농작물과 집짐승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필리핀에서는 엘니뇨현상으로 가물이 계속되어 피해를 입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ha의 농경지가 가물의 영향을 받았으며 70만ha의 농작물이 손실되었다.

도미니카에서는 2개월동안 계속된 가물로 산불이 자주 일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산불로 수백만ha의 나무가 불타버렸다고 한다.

모잠비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가물로 많은 면적의 밭에 심은 농작물들이 못쓰게 되어 알곡수확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광서장강지치구를 비롯한 중국 여러 지역들에서도 올해에 들어와 계속된 가물로 총총이 퍼져 많은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당과 정부는 나라의 서남부지역에 100년이래 처음 보는 왕가물이 일어닥쳐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가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 부대들과 인

민부장청부대들은 가물과의 투쟁을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임무로 틀어쥐고 제재적인 인민들의 생활상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최근 까자흐스탄대통령은 농업문제들에 관한 회의의 사회하면서 가물피해를 입은 서카자흐스탄주와 약쿠빈스크주의 농생업생산자들에게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시하였다.

케냐에서는 기후변화로 가물이 지속되는 조건에 맞게 나라의 주요수원지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시하였다.

우리가 가물피해로 가물이 지속되는 조건에 맞게 나라의 주요수원지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시하였다.

우리가 가물피해로 가물이 지속되는 조건에 맞게 나라의 주요수원지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시하였다.

일제의 죄악의 대가를 받아내고야말 것이다

나는 해방된 15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피눈물 나는 노예로써 중요양민 일제의 강제노동병피해자의 한 사람이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일제에 대한 증오로 눈에서 불이 고일 이가 갈린다.

해방된 가난한 소작농의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하였다.

15살 나던 해인 1943년 10월 평양에서 로동을 하던 일제는 형편을 찾아왔던 나의 우연히 거처에서 일본 쇼와덴포주식회사에서 낸 인부모집광고에 응하게 되었다.

광고에는 누구든지 쇼와덴포주식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돈도 벌고 기술도 배우며 좋은 생활조건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제 나이가 어린 탓으로 세상살이에 잠깐하였던 나는 돈을 벌면 집안살림에도 보탬이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통히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 후의 일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다. 그 후의 일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다. 그 후의 일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다.

강풍과 폭우, 큰 불피해

배라루세의 그르드노주, 위젠스크주 등 여러 지역에서 8일 강풍과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1000여명의 살림집과 사회봉사 시설 등이 파괴되었으며 2000여개의 주민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위질랜드 발전소의 송전설비

스위질랜드 발전소의 송전설비